



새생명오아시스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헌당예배를 드리고 임직식도 거행했다.



이번 18대 연목회를 이끌 임원들. 사진 제일 오른쪽이 조종곤 신임회장.

남가주 연목회 조종곤 회장 취임

남가주 연세목회자회(이하 연목회)가 29일 오후 4시 30분 사우스베 이선교회에서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18대 회장으로 조종곤 목사를 세웠다.

조종곤 회장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연목회의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 미주사회와 교계에 뜻깊은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17대 김기동 회장은 "지나한 연세동문과 교회,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104개 단체와 700명에게 컵라면 4300 상자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신임회장단이 협력해 지

역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달라"고 말했다.

감사예배는 신명균 수석부회장의 인도로 조후연 부회장의 대표기도, 김영숙 목사의 성경봉독, 연세콰이어의 특별찬양, 김정복 목사의 설교, 박종대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드러졌다. 이어 이취임식은 전지용 부회장의 사회로 김기동 목사의 이임사, 조종곤 목사의 취임사, 공로패 수여, 씨니 박 부에나팍 1지구 시의원 후보, 도성환 남가주 연세대 동문회장의 축사, 이정근·남상국 목사의 격려사,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축도는 한기형 목사가 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다짐하는 12주년

새생명오아시스교회 입당예배와 임직식

새생명오아시스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헌당예배를 드리고 18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지난 2006년 새생명선교회와 오아시스한인교회가 통합되며 설립된 새생명오아시스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지난 2011년 11월에 현 교회당으로 이전했다. 이 교회당은 LA 한인타운 웨스턴 길과 올림픽 길에 있어 사실상 한인타운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지난 6년간 모든 성도들이 동고동락하며 기도하고 헌신한 가운데 드디어 12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헌당하게 된 것이다.

예배에서는 교회당을 위해 헌금한 190여 성도의 이름이 적힌 패를 예배실 가장 앞 십자가 밑에 묻는 순서도 있었다. 김일형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고자 한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또 김 목사는 그동안 교회당 구입을 위해 애쓴 건축위원회가 해산됨을 공식 선포하고 건축위원으

로 삼긴 4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 목사와 건축위원들은 뜨겁게 포옹하며 감격을 나눴고 성도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이날 예배에서는 박희민 목사가 설교했다. 박 목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딤후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며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이 교회를 통해 LA와 남가주, 세계가 변화되는 새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축복했다.

임직식에서는 장로 2명이 각각 임직과 취임했고 안수집사 1명이 임직, 2명이 취임했으며 권사 11명이 임직, 2명이 취임했다.

이서 목사(OC교협 회장)는 임직자와 교회를 향해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당부했다.

임직자들을 대표해 담사를 전한 서영완 장로는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겠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담임목사님께 감사

드리며, 모든 성도들과 협력해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교회는 헌당과 임직을 준비하며 27일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28일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헌당 축제를 열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장애인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박모세 목사가 장애인 가족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살롱장애인선교회(이하 선교회)가 매년 5월 개최하는 경로잔치가 올해는 지난 1일 LA 한인타운의 한 중식당에서 개최됐다. 장애인 선교단체인 살롱은 매년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시니어들을 초청해 그들을 위로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자신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면서도 성인 장애인 자녀, 청소년 장애인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20여 명이 참석했고 대표 박모세 목사는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선물을 건네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건강하게 힘내서 가족을 돌보라’고 격려했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국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컬러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Brake Service	전기계통
Tune-Ups	10K Service
Computer Diagnostic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담임목사 취임 및 원로목사 추대 예배

일시: 2018년 5월 20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감사한인교회 본당

<모시는 글>
 금번에 감사한인교회의 구봉주 목사님 취임과 김영길 목사님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에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영길 목사님은 지난 1983년 3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5년 동안 감사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섬겨 오셨습니다. 또한 구봉주 목사님은 8년 동안 본교회의 청년담당 부목사님으로 섬겨 오셨습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한인교회 당회원 및 성도 일동

- <눈서를 맡아주시는 목사님들>**
- 설교: 손병렬 목사님 (포항중앙교회 담임)
 - 취임 서약: Rev. Rich Guerra 목사님 (SoCal District Superintendent, AG)
 - 권면: 지용수 목사님 (창원 양곡교회 담임)
 - 축사: 박종순 목사님 (흥신교회 원로)
 - 축사: 이정현 목사님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 축사: Rev. Ray Rachels (Executive Presbyterian, AG)

<김영길 목사가 인도하는 은퇴 기념 부흥회>

5월 6일	주일예배 (1,2,3부)
5월 7일	월요일 저녁 7:30
5월 8일	화요일 저녁 7:30
5월 9일	수요일 저녁 7:30
5월 10일	목요일 저녁 7:30
5월 11일	금요일 저녁 7:30
5월 12일	토요일 저녁 7:30
5월 13일	주일예배 (1,2,3부)

<TMF 사역 소개>
 감사한인교회는 김영길 원로목사님께서 은퇴 후에도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를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TMF에서 하게 될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자립교회를 위한 자비량 부흥성회 인도 (원하시는 교회는 tmfspirit@gmail.com으로 연락주시십시오.)
 ■ 선교지 개발과 후원 사역 ■ 정학생 돕기 사역 ■ 공출사역
 ■ 김영길 목사 신앙서적 출판 사역

<구봉주 목사 약력>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 Div.
 Talbot Theological Seminary Th. M 과정 중

<김영길 목사 약력>

한국신학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Div.
 서울 기독교대학교 Ph.D.
 AG 한국총회 총회장 역임
 미주 밀알 이사장

“평범한 학생을 비범한 인재로”

글로벌선진학교 가을학기 학생 모집 및 1.5~2세 교사 초빙

성공적인 국제화 교육으로 주목

2003년에 시작된 글로벌선진학교(GVCS,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는 요즘 아시아권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제화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독교중등학교가 되었다. 개교 15년 만에 한국(음성, 문경)과 미국(펜실베이니아)에 3개의 보딩스쿨을 설립하였고 현재 1,000여 명의 재학생들을 글로벌 크리스천 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2017년 졸업생 중 40% 이상이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50위권 명문대에 진학하였으며, 아시아의 세계적 명문인 홍콩대, 홍콩중문대, 홍콩과기대, 홍콩시립대, 싱가포르대, 일본의 와세다대, 중국교통대, 하얼빈공대 등 유럽의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명문대학에도 대거 진학했다. 졸업생들이 유학생 신분으로서 각 대학들로부터 약속받은 장학금의 총액은 2017년 한 해만 해도 미화로 700만 달러(한화 75억원) 이상이였다.

STEAM 융합교육 등 독특한 교육과정

이렇게 GVCS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독특한 교육과정이다. GVCS만의 특화된 교육 중에는 STEAM 융합교육, 글로벌 프로젝트, 국제교류활동, 태권도 교육 및 신앙 교육 등이 있다.

STEAM 교육은 과학(Science), 첨단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을 융합시킨 교육과정으로 점진적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및 스마트 시스템의 사물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맞춤형 교육이다. GVCS 설립이사장 남진석 목사는 “산업발달에 따라 글로벌 융합기술 사회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아우르는 창의적이며 융합형 인재 양성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과다한 경쟁의 선진국 기반 대학 교육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과 주요 문화권에 진출하여 국위를 선양할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목표에 발맞춰 글로벌(Glocal)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글로벌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합성한 단어로 선진국의 과도한 교육경쟁으로 인한 수많은 고급인재들의 도태를 방지하고 개발도상국과 주요문화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과 더불어 의학, 법률, 교육, 경영 등의 분야를 전공하여 해당 국가의 리더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3세계 대학 진학을 돕는 프로젝트이다. GVCS는 “각 문화권 거점국가와 도시에 교육선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해 전문인 선교사는 물론 현지 국가와 문화권의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명의 학생이 독일의 자매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매년 GVCS가 주최하고 있는 Global Youth Forum 및 국제학력경시대회, 각 대륙의 외국 자매학교들과의 국제 교류활동 및 국



글로벌선진학교의 캠퍼스들. 위쪽 왼쪽이 문경, 오른쪽이 음성 캠퍼스이며 아래쪽 사진은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다.

제봉사활동 등은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야를 갖게 하고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또래 간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GVCS의 독특한 교육특징 중 하나는 전교생 태권도 교육과 신앙 교육이다. 태권도 프로그램은 졸업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최소 태권도 2단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신앙 교육으로는 주일예배를 비롯하여 생활관 방별 기도회, 새벽기도회, 소그룹 제자훈련, 금요찬양기도회, 성경과목 수업, 특별 영성집회, 영어 예배, 학년별 일일수련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은 자발성에 기초한 강한 영적 훈련을 받고 있다.

동안 참전용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독교로 사용해 왔던 곳으로, 자연과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캠퍼스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중상위권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를 둔 미주 지역 교민들에게는 어떻게 자녀들을 경쟁력 있는 명문대학에 진학시킬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철저한 신앙 교육을 동반하기를 원한다면 GVCS 펜실베이니아 캠퍼스가 바로 그 답이다. 기숙사 생활을 통한 집중학습과 안정적인 전문적인 영성훈련을 통하여 학습능력은 물론 비전의 크기를 한 단계 도약시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 최고의 명문대학에 장학금을 지원 받으며 진학할 수 있다.

는 학생들이 이곳 GVCS에서 학습과 생활 그리고 신앙이 잘 관리되면서 매우 빠르게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이들은 시민권자로서의 이점을 살려서 미국 최상위권 대학은 물론 다양한 대학으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GVCS 한국 음성, 문경 캠퍼스 해외 동포 1.5~2세 교사 모집

GVCS 한국 음성, 문경 캠퍼스에서는 교육선교사역에 관심 있는 한인 1.5세 및 2세들을 교사로 초빙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대학원 졸업자 우대)하고 교사로서 부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여 불만다. 2년 이상 계약을 할 시에는 월급 외에 왕복항공권, 교사숙소, 매일 점심, 의료보험 등이 지원된다. 학교 측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교육선교사역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교포 자녀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며 각 교회의 담임목사나 담당목사의 적극 추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입학 문의) 717-496-9487
kyungsoo@gemgem.org
www.gvcspa.org
교사 지원 문의) 714-742-2674
sungwoo@gemgem.org
www.gemgem.org

현지 학생 및 전 세계 학생들과 호흡

현재 펜실베이니아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찾아온 학생들이며 특히 농구와 야구를 통하여 미국의 명문 프로구단과 대학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학생들이다. 또 학교가 소재한 체임버스버그(Chambersburg)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하나둘씩 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명실공히 기독교중학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학교를 다니면서 집중도를 발휘하지 못하여 성적관리가 안 되

펜실베이니아 캠퍼스 각광 미주 지역 교민 자녀들에게 기회

2015년 공식적인 개교를 한 GVCS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는 185 에이커(22만평)의 대지 위에 대운동장(풋볼스타디움), 2개의 실내체육관, 대강당, 채플, 각종 실험실, 도서관 등 최상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쾌적한 다운타운식 기숙사도 구비하고 있다. 캠퍼스에는 총 80여 개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 130여 년



GVCS의 재학생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인가(TRACT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창립 3주년
www.joonimchurch.net
주님의교회
JoonimChurchVenturaCounty

주님의 교회에서는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행복축제를 계획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권사 임직식 5월 6일 (주일) PM1:00
- 김국정, 김영주, 박선영, 오진영, 박미숙, 함화자 권사를 임직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 세미나 5월 18일(금) PM 7:30
19일(토) PM 7:00
20일(주일) PM 1:00

〈말씀〉 강태광 목사
-목사, 시인, 30년 목회(한국 군종목사, 이민목회)에 이어 현재는 'World Share USA'와 '행복 만들기 연구소'를 통해 교회들을 섬기며, 기독교의 "행복" 칼럼을 연재하는 행복 설계사. 저서: 당신의 행복을 여는 99가지 열쇠, 불청객(시집), 야곱(설교집) 등.

〈찬양〉 이천 목사
- “새벽이슬 같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등 수많은 찬양을 작곡하였고 현재 미주 복음방송 "이천의 미라클 블레싱"의 진행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시
■ Youth & Ele. 주일예배 : 오후 1시
■ 금요찬양예배 : 오후 7시 30분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805.208.8242
301 W Avenida De Las Flores, Thousand Oaks, CA 91360

오정택 담임목사

큐티 사역 통해 이민교회와 선교지 섬길 터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김주련 대표 기자간담회



김주련 대표(오른쪽)가 성서유니온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전인철 목사(생명의말씀사).

“전 세계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소속과 교파가 달라도 선교지의 언어로 큐티 묵상집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국제성서유니온은 영국에서 1887년 시작된 단체이며, 한국에서는 45년째 매일성경과 다양한 연령을 위한 묵상 자료집을 출판하고 있다. 이처럼 문서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김주련 대표가 LA를 찾았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로렐장로교회에서 열린 LTC

성경묵상 집회에 큐티 강사로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이민교회에 한글과 영어로 된 성경묵상집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동부에 뉴욕 중부교회, 워싱턴중앙장로교회, 서부에 총현선교회, 선한침지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등이 매일성경으로 전 교인이 큐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어권 세대를 위해 묵상집이 영어로 번역돼 온 가족이 큐티를 하고 있어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성서유니온은 또 전 세계에 흩어

진 선교사들과 함께 큐티 묵상집을 제작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 있고, 선교사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번역된 나라는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터키, 일본, 캄보디아, 중국 등이며 현재 스페니시로 번역을 진행 중에 있다.

매일성경은 예화나 다른 본문이 없고 성경 중심인 것이 특징이며 6년의 스케줄에 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큐티를 하게 된다.

김 대표는 “모든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계속된다. 이 부분이 매일성경의 중요한 편집의 맥락이고 차별화이다”라고 말했다.

성서유니온은 향후 미주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서유니온의 다양한 콘텐츠를 알리고, 특별히 미주 지역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제작된 이북(E-Book)을 홍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미주지역 문의) 714-876-8832



한국의 친구들을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한 위드뮤직의 멤버들

“한국 고아원 친구들에게 사랑을” 위드뮤직 USC에서 제3회 자선공연

미주 한인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된 위드뮤직(With Music, 이사장 김용석, 대표 사라 정)이 지난 29일 USC 카밀러리 홀에서 제3회 자선 공연을 펼쳤다. 이 행사 수익금은 한국에 있는 고아원인 신애원 친구들에게 약기를 전달하고 그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함께 공연하는 데에 사용된다.

위드뮤직의 회장 조슈아 리 학생(11학년)은 신애원 친구들과 함께 했던 지난 공연을 회고하며 “정말 감동적이었다. 우리가 음악으로 우

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신애원 친구들도 우리가 전달하는 약기를 통해 자신의 열정을 쫓아가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공연장의 120석이 모두 매진되고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루었으며 참석자들은 위드뮤직의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이번 공연은 김용석집념전문병원, OK보석금, CK성형외과가 후원했고 한국문화원장 김나중 원장도 특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경로잔치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촬영했다.

창대교회, 올해도 지역사회 경로잔치

창대교회(이준준 목사)가 매년 샌버나디노 지역 시니어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경로잔치가 올해는 지난 4월 29일 주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표어 아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풍성한 잔치였다.

1부는 예배로 진행됐다. 이준준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고 김영모 목사가 설교, 정삼희 목사가 기도를 맡았다.

2부 순서는 권철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한국 음악 무용 예술팀이 화관무, 북춤, 장구춤, 부채춤 등 한국적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또 플라토 클라리넷 연주가 있으며

라티노 교회에서 찬조 찬양으로 행사 분위기를 더욱 더 뜨겁게 했다. 창대교회 찬송가 울동팀, OC KMC 합창단의 찬양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이준준 목사는 “지역 어르신들께 섬기는 매우 복된 시간이었다”고 감사사를 전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단합대회가 열렸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단합대회 매주 월요일 오후 세계아가페교회에서 연습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엄규서 목사)이 지난 4월 23일(화) 오후 6시 알함브라의 한 식당에서 단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총무 김근수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으며 박재용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이상기 목사가 ‘복있는 사람’(시편1: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종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단원들은 식사 교제를 했으며 백선용 목사의 사회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보냈다.

엄규서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 동안 바쁜 가운데서도 연습과 공연에 열심히 참석해 준 모든 단원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화음으로 어디든지 찾아가는 멋진 찬양단이 되자”고 격려했다.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세계아가페선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다. 단원이 되길 원하는 목사님과 장로부부를 환영하고 있다. 문의) 323-620-6400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할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미디어벽,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63>

쿠르드 형제 하비브를 찾아서

<지난 호에 이어> 하비브를 찾기 위해 도착한 바트만은 정말 2, 3년 사이에 그 지형이 바뀐 듯 하였다. 도시는 많이 커졌고 예전에 없던 아파트촌들이 즐비하여졌고 현재도 계속 건축 중에 있었다. 길거리에는 쉽게 시리아 난민들이 눈에 띄었다. 그렇게 난민들이 많이 몰려와 있음에도 대부분 쿠르드인들은 그들을 성가셔 하지 않는다. 자기들과 같이 살면 된다는 생각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수용할 아파트 시설에 대한 생각도 매우 긍정적이다. 쿠르드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참 감사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가 하비브의 동네 근처를 몇 바퀴씩 배회하고 있을 때 지켜 보고 있던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줄지 물었다. 필자는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친구를 찾는다"고 하였다. 그는 "이 동네 사람들은 아파트 건축 때문에 흩어졌다"고 했다. 자기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 하며 자기가 도와 주겠다면서 골목을 몇 번 꺾어 지나가다가 관공서 같은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사진과 이름을 대며 찾아 보려 했으나, 결국 성과 없이 돌아서야 했다.

저녁 무렵이 되어 필자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하고 그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져가고 하여 한 쿠르드 식당을 찾았다. 음식도 원하는 대로 시켜 달라고 하여 몇 가지 음식을 나누는 중에 필자 소개를 하며 복음을 전했다. 나는 한국인이고 크리스천이며, 3년 전 바트만을 찾아서 하비브를 만난 이야기, 그의 가족들에게 전도한 이야기를 했다. 카알이라는 이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있었고, 아내는 한 명이었다. 아내와 자신의 부모들을 한 집에서 다 모시고 사는 참 효자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손사

를 치며 자기는 알라를 믿고 알라가 구원시켜 줄 것을 믿는다 하였다. 필자는 가지고 있던 쿠르드어 요한복음 쪽복음을 그에게 건네며 시간 있을 때 한 번 읽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괜찮냐" 물었더니 "기도는 좋다"고 하여 그의 어깨 손을 얹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영혼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하였다. 꽤 오랫동안 기도할 줄 모르던 그는 미동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까 "고맙다"고 하였다. 내용이 무언지 알고 고맙다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씩 웃으면서 알 것 같다고 했다. 헤어지면서 다음에 다시 올 때 찾겠다 하였다니 그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었고 우리는 헤어졌다. 이번엔 하비브를 만나지 못했지만 다음에 다시 와서 꼭 만날 것을 기대하며 더불어 다음엔 카알에게도 더 분명한 복음 증거를 하리라 다짐했다.

바트만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2시간 가장 떨어진 마르딘이라는 시리아와의 국경도시로 가서 하루 전도 순례를 하였다. 마르딘도 구 마르딘이 있고 조금 떨어져 신 마르딘이 있는데 신마르딘에도 엄청난 건축 붐이 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터키 전역에서 난민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터키인들의 마음, 특히 그 안에 쿠르드 민족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다. 터키는 지금 변하고 있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직원들을 존중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9.11 테러는 세계를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얼어붙게 한 사건입니다. 그 한파가 경제계에 가장 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던 세계경제에 덮친 초대형 악재였습니다. 그 충격의 한복판에 있었던 산업이 항공 산업이었습니다. 테러 공포로 갑자기 여행객이 20~30% 줄었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항공사들은 앞다투어 감량 경영에 돌입합니다. 급격한 구조 조정을 한 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 항공사들이 해고한 근로자 수가 무려 7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그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그런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인원 감축은커녕 오히려 조종사와 승무원의 수를 늘린 항공사가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South West) 항공입니다. 1999년 미국 내 모든 항공사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오로지 사우스웨스트만 흑자를 기록합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많은 인원을 감축하고도 줄줄이 도산했는데 사우스웨스트는 오히려 직원을 증원하고도 흑자를 남긴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1971년 변호사 출신 허브 켈러허가 세운 최초의 저가 항공사입니다. 3대의 보잉 737로 초소형 항공사로 출발합니다. 텍사스 주의 댈러스, 휴스턴 그리고 샌안토니오 등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소꿉장난처럼 시작한 사우스웨스트는 굴지의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객 운송 기준으로 세계 3위입니다. 나아가 사우스웨스트는 좋은 직장으로 정평이 나왔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입니다.

사우스웨스트의 성공비결은 여러 MBA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성공비결이 거론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직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경영입니다. 행복경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행복경영은 가족경영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깁니다. 그래서 회사가 위기에 처해도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창업자 켈러허 회장은 "사업 전략을 구성할 때, 고객, 직원, 주주들 가운데 단연코 직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며 직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둘째는 유머경영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일터의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즐거운 직장을 모토로 삼고 유머감이 좋은 사원을 선발합니다. 기발한 가내 방송은 유머경영의 상징입니다. 가령 "본 비행기는 OO까지 가는 비행편입니다. 가내에서는 금연입니다. 흡연하실 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셔서 날개 위에 앉아 마음껏 흡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흡연하시면서 감상하실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라는 가내방송은 고객을 사로잡은 히트작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즐

거운 기업문화'는 사우스웨스트의 행복경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웃으며 일하고 웃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환경을 추구합니다. 일터가 즐거운 사우스웨스트는 일류 회사입니다.

셋째는 존중경영입니다. 최근 무자비한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항공을 보면서 다시 사우스웨스트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직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팽공 사건, 물컵 사건에는 직원에 대한 존중도 배려도 없는 듯합니다. 경영학 교과서에 '일류기업은 직원을 모신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직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직원들을 무시하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하게 추락하는 대한항공을 보면서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리더십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사우스웨스트의 행복경영은 존중경영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직원들의 만족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고객들의 갑질에 직원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을 보호합니다. 경영진은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더 중요하다는 경영원칙을 고수합니다. 사우스웨스트가 주는 교훈은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된다'입니다. 대한항공을 포함한 기업들이 직원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기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한인교회 칸투스 남성중창단 특별 공연

알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소속 칸투스 남성중창단이 오는 5월 6일(주일) 오후 6시 교회 본당(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에서 특별 공연을 개최한다.

이 중창단은 2000년 10월 베델한인교회 성가대 남성 4명이 시작해 지금은 16명이 활동 중이다. 교회 내 활동은 물론, LA와 오크리지카운티 지역의 각 교회 및 단체들로부터 초청받아 연주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칸투스 남성중창단의 이번 공연



베델한인교회 칸투스 남성중창단

에는 특별히 한인 2세들로 구성된 베델 유스 C2C 힙합 댄스팀과 '사라토미'로 잘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도진미, 차세대 소프라노 레이첼 배(배주은) 등이 찬조 출연한다. 찬

양과 더불어 아름다운 가곡과 가요를 통해 한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714-602-0025 김준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요한계시록 21: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성경본문: 계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저의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기대와 꿈을 포기하지 못한 채, 인생을 아쉬움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기 인생의 기대와 꿈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스스로 인생을 실패와 불행으로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로 얻어지는 결과는 헛되고 허무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금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우리의 시민

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

본문 1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왜 처음의 하늘과 땅은 없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7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찌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일부러 안 믿고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당시 기롱(欺弄, 속이고 희롱하는 것)하는 자들, 거짓 선동하는 자들을 쓸어 없애버리시기 위해 노아 때 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하십니다.

3. 하나님으로 온전히 즐거워 할 가장 사랑하는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 얻어 하늘나라에 가 있던 영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모두 데리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천국에 있던 영들은 각기 흠어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를 입어 영적체질로 되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신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천사들이 와서 불등고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러한 휴거 과정에서 이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목적

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갖추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 동료들을 이 생명 길로 인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주인공으로 자격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이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며, 육신이 원하는 본능적 욕구로 짐승같이 살게 되면서 짓게 되는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아들, 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모집
6/4 - 7/27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인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FABIEN FINANCIAL INC.

무담보 비즈니스 론 Fabien에 맡기시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용자, 쉽고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은행에서 비즈니스 용자를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 No 크레딧 Bad 크레딧, 용자 문제 없습니다.
- ✓ 세금보고서가 없이도 용자가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누구나 용자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매매 용자

10K~500K

까지

캐쉬 어드밴스

SBA 용자

상업용 부동산

하드머니 [플리핑 용자/Flipping Loan]

www.FabienFinancial.com

금융 전문가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 714.264.7288 | 844.380.9990

fabienfinancial@gmail.com

6131 Orangethorpe Ave #400 .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Financial Freedom을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Business Service

- 주식회사 설립
- 비즈니스 크레딧 Build Up
- 상업용자
- 비즈니스 매매 상담

Real Estate Service

- 리스팅 전문
- Flipping House 투자상담
- Flipping House 용자상담
- Hard Money



Love Foundation
LAW GROUP

러브파운데이션

LDA#315 / Bond 가입업체 / 714.227.7358
6131 Orangethorpe Ave. #400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Premier Services Realty DRE #01895705

Dr. David Oh 법학박사 데이빗 오

- Azusa Pacific University 졸업
- Azusa Pacific University 석사
- Graduate School of Houston 박사
- Global Financial Service Certificate 수료



영적 각성 성장대회에서 박성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애틀랜타 영적 각성 성장대회 성료 애틀랜타한인목사회 주최로

애틀랜타한인목사회(회장 류재원 목사)가 애틀랜타 한인들을 위한 '영적 각성 성장대회'를 지난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새생명교회(담임 조용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류재원 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영적 무장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에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이 넘치기를 성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우리 한인 2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사로 나선 박성근 목사는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및 신약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지난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LA한인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박 목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를 주제로 힘있는 메시지를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성근 목사는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유일한 능력자이신 예수께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건 강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예수에게 철저히 붙잡혔

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에베소서 3장1-7절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예수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바울을 붙잡고 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도 예수께 붙잡히게 되면 세상의 결박, 미움, 증오심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내가 누구에게 붙잡히는가에 따라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목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에 붙들려 살아왔는가? 흑사돈, 성공, 명예에 붙들려 살지는 않았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나의 마지막을 책임질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근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내 삶의 생명줄이신 예수께 꼭 붙잡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회자 세미나는 23일(월)에 열렸으며 영적 각성 성장대회 헌금은 목회자 자녀 장학금과 선교사, 6.25 참전용사와 싱글맘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수영 기자



디딤돌교회 제19차 재할 및 영성수련회

노숙자 재활 및 영성수련회로 새 삶 다짐 디딤돌선교회 주최로 18명 노숙자 참가

애틀랜타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 제19차 재할 및 영성수련회가 지난 4월 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다니엘 기도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련회에는 18명의 노숙자들이 참가했다.

수련회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오전에 1번, 오후 2번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저녁 집회는 애틀랜타 제일장로교회의 정

년부 찬양팀과 정한울 목사(청년담당)가 인도했다. 마지막 예배는 송요셉 목사가 인도했으며 성찬식도 있었다.

디딤돌선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성경공부와 리더 훈련, 토요일 나눔과 돌봄사역을 하고 있다. 또 노숙자 교회 예배도 드리고 있다.

문의) 404-429-9072

애틀랜타 내셔널 프리칭 컨퍼런스

2018 애틀랜타 내셔널 프리칭 컨퍼런스가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라"는 주제로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지아주 돌루스 소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열린다. 미주 지역과 한국의 영향력 있는 설교학자 및 설교자들이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앤더슨 대학교와 프리칭 매거진이 주최한다.

주최 측은 "최상의 설교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한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말씀의 종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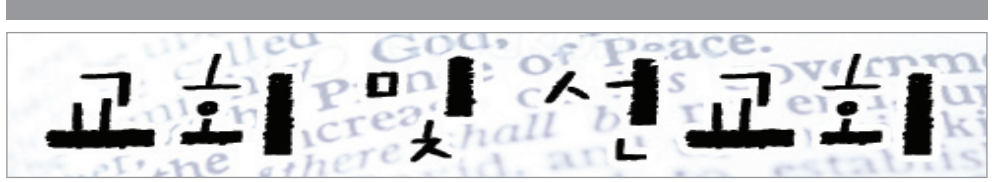
주요 강사로는 제임스 메리트 크로스포인트교회 담임목사, 제리 바인스 제리바인스 미니스트리 대표, 류응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호 국제신학대

학원 설교학 교수, 스테판 루메지 벨소울 침례교회 담임목사, 허셀 요크 남침례신학교 설교학 교수, 유희덕 허드슨테일러대학 설교학 교수, 케빈 에셀 미남례교 국내선교부 총재, 데니스 펠프스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 설교학 교수, 임도균 침신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편, 영어로 진행되는 전체 세션에서는 한국어 통역(신희광 박사)이 제공될 예정이다며 별도의 한국어 컨퍼런스도 5월 15일 오전 9-12시에 제공된다.

목회자, 신학생들은 등록시 할인혜택이 있다. 등록은 컨퍼런스 공식 웹사이트(www.ncpnw.com)를 통하여 하면 된다.

한국어 등록 문의: 678-707-0057
icopkorea2018@gmail.com
윤수영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22
주일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후 7:00
주요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주요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방사를 세워갈 때,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행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요연락처 T. (213)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5:30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새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연합사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유주동부 오전 11:00 6:00 (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형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세각죽 성경공부 오후 1:00 중보기도회 (월-토)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반) 오전 8:30 2부예배 (분반)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반) 저녁 8: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30
리셋에델리아에 (소매일)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유주동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5:30

민중희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세 (Calling), 고치고 (Healing), 기르며 (Maturity), 맞선다 (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유주동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7: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주동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fferin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부기도주일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빙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금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 오전 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토요일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출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전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6:00(월-토)
유종고흥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3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주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안회 금요일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부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영림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월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승구 교수가 개혁신학포럼 제15차 정기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교리 설교는 딱딱하고 지루하다?

이승구 교수, 개혁신학포럼 제15차 정기세미나

개혁신학포럼 제15차 정기세미나가 '성령과 설교'라는 주제로 4월 30일 고양 풍동 현산교회(담임 최덕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승구 교수(합동신대)가 '현대 교회와 교리 설교의 회복'을 제목으로 첫 발표를 전했다.

이승구 교수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저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성도들의 '우민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며 "현대 사회에서는 교단을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교회들의 설교가 비슷해지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이전 시대 교회와 같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의식적으로 잘 배워가려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교리 설교는 먼저 교파 의식을 갖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같이 고백하는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 보편적 신조들과 그 내용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궁극적으로 과거 공교회와 함께 성경에서 가르친 사도적 가르침을 그대로 고백하는 교회임을 드러내면서 함께 고백하고, 다음 세대의 교회도 같은 고백을 하면서 같이 나아가기 위해 교회를 교육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런 공통적 신조에 신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나 설교자들은 결국 이단으로 나아가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런 신앙고백을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고백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리 설교에 대한 일부 오해들이 있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거

나 제목 설교처럼 서로 연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딱딱하고 너무 길어서 지루하며 재미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물론 교리 설교를 잘 하지 못하면 이것이 오해가 아니라 교리 설교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리 설교를 잘 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한 번에 한 주제씩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를 꼽았다. 그는 "교리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가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리적 진술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일련의 교리 설교는 하나하나로 보면 강해 설교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익숙히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 일정한 교리 내용이 근거하는 성경 본문을 잘 강해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설교자에게 교리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 본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하면 성도들이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교리가 그저 교조적 고백이 아닌, 성경에 근거해 성경적 사상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잘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교리 설교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설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리 설교' 등을 강조하면서 "교리 설교가 '지루하다, 딱딱하다, 재미없다'는 것은 교리 설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가 다양성 있게 제대로 설교하지 못해 생기는 오해"라며 "재미있고 다양한 성경 내용을 잘 알게 하고 그것이 함의하는 교리를 잘 이끌어 내는 설교는 결국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 바른 사상을 갖고 살게 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정년 은퇴한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를 이 교회 청년들이 축하해 주고 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 은퇴

제3대 담임목사는 미정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가 만 65세의 나이로 29일 정년 은퇴했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이 교회 부교역자인 정성택 목사가 담임 대행을 맡는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29일 오후 서울 논현동 본당에서 교인들이 가득 찬 가운데 피영민 담임목사 은퇴예배를 드렸다. 피 목사는 지난 2002년 8월 18일, 현재 원로인 김충기 목사에 이어 이 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피영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신학교 교수로, 담임목회로 달려오다 보니 이제 65세가 되어 정년 은퇴하게 되었다.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는 모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들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교회가 김충기 원로목사님과 저를 이을 훌륭한 3대 목사님과 함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허물과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잘 했다고만 해주셔서 몸돌 바를 모르겠다"며 "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든가 영혼에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에게 용서를 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교는 교회가 속한 기독교침례회(기침) 경경총회장인 윤태준 목사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행 20:24)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윤 목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한 고별 설교에서 부탁을 한다. 바로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라며 "초신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돕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 바울의 말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피영민 목사님이 떠난 후에도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삼십배 육십배 백배의 결실을 맺는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이시아 챔프스와 자녀들 ©페이스북

5명 자녀 둔 33세 싱글맘 법대 졸업 “모든 영광 하나님께”

5명의 자녀를 둔 33세의 싱글맘이 오는 5월 텍사스 서던대학 서드컷 마샬 법과대학(Thurgood Marshall School of Law)에서 법학 학위를 수여 받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이시아 챔프스(Ieshia Champs)로 최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살 때부터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인 불안정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꿈을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임신을 했으며 고등학교를 그만 두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다. 2009년에는 일련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그 해 그녀의 배우자는 암으로 사망했으며 그녀의 가족은 화재로 집을 잃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뇌졸중을 앓았고 또 다

시 불행이 일어나자 자살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지역 교회에 도움을 청했다. 휴스턴에 있는 크리스천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던 목회자 사모인 루이스 홀만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챔프스는 홀만에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에 대해 말한 적이 없지만 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학교로 돌아가 학위를 받고 변호사가 되길 원하는 그 꿈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그녀는 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와 휴스턴 대학을 거쳐 이번에 드디어 법대를 졸업하게 됐다.

그녀는 루이스 홀만 사모와 리처드 홀만 목사를 제2의 부모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5명의 아이들과 찍은 졸업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글을 남겼다.

이미경 기자



앤디 스탠리 목사

기독교인들의 일치 신학적 정확함보다 중요 앤디 스탠리 목사, 사명의 하나됨 강조

미국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의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목사가 “교회의 일치가 ‘신학적 정확함’(theological correctness)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리더십 세미나인 오렌지 콘퍼런스에 참석한 앤디 스탠리 목사는 “교단이 다른 교회들이 사명에서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3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한 설교에서 스탠리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온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과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강조했다.

스탠리 목사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일치는 중요한 사명이며, 불일치는 사명의 방해요소이다”라고 했다.

또 자신의 경험을 들어 성찬식이나 유아세례 등과 같은 신학적 논쟁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교단의 교리적인 특성, 세례, 예배 형식, 설교보다 우리의 하나됨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교단의 정치보다 우리의 하나됨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세상 국가들의 정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나누는 일이 계속되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신앙의

하나됨이 신학적 정확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위원회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 율법을 엄격히 강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용하기도 했다.

앤디 스탠리 목사는 1995년 애크랜타에 본부를 둔 노스포인트 미니스트리(North Point Ministries)를 설립한 목회자이자 작가이다. 아웃리치 매거진(Outreach Magazine)의 설문 조사에서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목회자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과거 카탈리스트 신사내티(Catalyst Cincinnati) 세미나에서도 “신학을 사역 위에 두지 말고,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 순위에 두라. 공동체 내에서 좋은 이웃이 되라.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문화를 깨우는 세대가 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진리를 말하지 않으셨다. 또한 강력한 처방을 내리실 때도 은혜는 줄어들지 않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 다른 하나님을 희생시키지 않으므로써 은혜와 진리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교회가 공동체 내에서 좋은 이웃이 될 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ainold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O.C. /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안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org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0: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 (주말)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베델 교회
예수님이 아시게신디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국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mhn_j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민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등교예)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C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민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중등부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고등부 오전 11:30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한어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일으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남가주 LA 에 위치한 한길교회(The Way Church)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한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5년 이상 목회경험(부목사/행정/교육목사 포함) 정규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M Div. 학위 취득자 PCA에 가입되었거나 가입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이력서
본인 소개, 신앙고백서 / 목회 비전
1년 이내 두편의 설교(최소 한편은 동영상)
목사 안수 증명서, 대학 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목회자 2명의 추천서(preferred now, or later upon request)
제출서류 마감일 5/31/2018
- **제출**
thewaychurch.calling@gmail.com
모든서류는 PD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한길교회 청빙 위원회

4050 West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에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에담교회 담임목사

깊은 맛을 경험하려면 감각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감(五感)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감이란 다섯 가지 감각으로 시각(視覺), 청각(聽覺), 후각(嗅覺), 미각(味覺), 그리고 촉각(觸覺)입니다. 깊은 경험은 오감을 통해 전달됩니다. 깊은 경험이란 감각이 깨어나는 경험입니다. 감각이 무디어지면 깊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맛을 경험하려면 감각이 깨어나야 합니다. 감각은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감각을 통해 고통을 느끼고, 감각을 통해 쾌락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감각과 쾌락을 느끼는 감각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기쁨을 경험합니다. 불쾌감도 감각에서 옵니다. 잘못된 접촉, 부적절한 접촉은 우리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또한 좌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성스러운 접촉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스러운 접촉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친밀한 사랑 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깊은 경험을 위해서는 깊은 곳에 감추인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무디어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무디어지고, 결국은 잃게 됩니다. 반면에 감각은 많이 사용할수록 더욱 개발됩니다. 특별히 우리 몸의 근육처럼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는 감각은 더욱 개발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탁월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각을 상실한 까닭에 청각을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각장애인은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도 무척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손의 촉각을 통해 점자(點字)를 읽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가 만났던 인디언 이야기를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뉴욕의 변화한 거리를 지나는 중에 그의 친구 인디언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나우웬이 그에게 이토록 시끄러운 거리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때 인디언이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아래 정말로 귀뚜라미가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중에 그들의 청각을 탁월하게 개발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깨우기 원하는 감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지 엘리엇은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느릿느릿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스러움과 덕스러움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은 경험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경험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멈추어 삶을 음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둘러 먹기 때문에 미각의 신비를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 맛의 깊이를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의 경우 입 안에 1만 개의 맛 감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입 안의 1만 개의 맛 감지기가 작동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맛 감지기가 작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급히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오감 외에 주신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감각입니다. 오감으로만 산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오감을 넘어선 영적 감각을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 감각은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이 발달하게 되면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영혼은 영감으로 살찌웁니다. 영적 감각은 깊은 곳에 감추인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령님과 접촉을 통해 개발됩니다. 깊은 곳에 감추인 영적 감각을 깨우는 사람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 청각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때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 깊은 맛을 경험하기 위해 영적 감각을 계속해서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 받습니다

폭력 영화와 괴기 영화가 난무하는 추세인 세상에서 오래간만에 뜻 깊은 영화를 보았다. 순교자의 소리(Voice of Martyr)가 제작한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 받습니다”라는 영화다. 이 영화는 1945년, 루마니아에 쳐들어 온 러시아의 스탈린 공산정권이 루마니아를 장악함으로 종교 제재를 가하게 되자 진리의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성공회 목사 리처드 워브란트(Richard Wurmbbrand, 1909-2001)가 예수님을 위해 핍박 받는 일생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워브란트牧사는 공산 정권에 비위를 맞추려고 거짓으로 타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유혹을 버리고 비밀리에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원수인 러시아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러시아 군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며 사역하다가 잡혀 가게 된다. 감옥에서 14년간 온갖 고문을 받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워브란트牧사는 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 아내 사비나(Sabina)도 워브란트牧사에 이어 3년간 오지에 끌려가 온갖 육체적 노동과 갈



이민숙 전도사
LA백송교회

비뻤아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고도 끈기있게 예수님을 전하며 고난을 이겨 내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과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들의 담대함은 아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핍박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마 16:24)이라고 하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고 하셨다.

워브란트 목사 부부는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

1967년 워브란트 목사 순교자의 소리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 생활 하는 이들이 많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진정으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하며 사는가? 현실의 삶에 묶여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태만한 믿음 생활과 조그마한 일에 자존심이 상해 아파하는 약하고 미성숙한 나의 모습을 본다.

오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고통받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생명 걸고 지고 나아가기를 다짐한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썬니 김 목사
LA씨티교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 하느냐?” “왜 너의 앞날을 두려워 하느냐?” 사람은 결국 죽을 존재이고 풀처럼 시드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시고 바다를 요동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

이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운 대상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확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진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스스로 거부하고 포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간 도서

예수는 누구인가
조정민 | 두란노 | 152쪽

<왜 예수인가?>란 책을 썼던 저자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등 8 가지 키워드로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성경 요한 복음 속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자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부이다. 예수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성경은 신앙에 첫발을 내디딜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지침서로, 읽고 또 읽어서 숙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는 누구인가?
Who is Jesus?
조정민 지음

만화 마르틴 루터
김홍만 | 김태호 그림 | 생명의말씀사 | 1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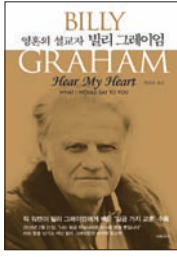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도연구소 소장인 저자가 마르틴 루터의 생애와 신학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일러스트 작가의 도움을 받아 만화로 표현해냈다. 저자는 “루터는 종교개혁자이기 보다 탁월한 복음 사역자였다”며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루터의 열정을 통해, 거저 가르침이 난무한 이 시대에 복음의 정수를 전하려 한다. 이 책을 함께 읽으며 종교개혁의 의미를 자녀와 나누어 보는 것도 권할만 한다.



마르틴 루터
김홍만 지음, 김태호 그림

영혼의 설교자 빌리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 박종윤 역 | 지혜의서 | 308쪽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60년 사역의 마지막 저서로, 그가 '천국으로 이사한 뒤' 출간하기로 기획하고 생전에 집필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을 통한 삶의 변화와 구원, 복음의 의미와 전도의 중요성,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삶의 태도, 복음주의의 미래,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에 대한 개인적 성찰 등 5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BILLY GRAHAM
영혼의 설교자 빌리 그레이엄
New City Heart
빌리 그레이엄 지음, 박종윤 역

추천 도서

전직 주식 중독자 “비트코인으로 눈 돌리지 말라”

“투기에 있어 마지막은 완전히 다 잃었을 때뿐”

주식 중독으로 빚더미에 노숙생활, 정신병원 입원까지 했다가 신앙의 힘으로 교수가 된 김덕희 교수가 최근의 '비트코인 열풍'을 우려했다. 김덕희 교수는 최근 저서 <대학교수가 된 노숙자>에서 “걱정되는 것은 최근의 비트코인 열풍이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든지 제2의 비트코인 같은 투기 열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단언컨대, 당신은 투기로 큰 돈을 벌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이고, 크게 보면 시스템은 비슷하다”며 “개미들은 자신이 열과 성을 다해 모아놓은 재산을 큰 손들에게 털리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위험성이 높은 도박상품이다. 도박은 사람의 뇌에 흥분을 주고 쾌락을 준다”며 “그래서 쉽게 빠져들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 주식보다 더 나을 것 같은가?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들 이것을 알면서도 왜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손을 대는지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이다. 도박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의 인지적 오류가 가세한다”며 “다른 사람이 잃어도 나는 팔 것”이라는 전능감과 망상적 희망과 꿈,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만 골라 듣고 손해를 봤다는 사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환상이 재앙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교수가 된 노숙자 김덕희 시커뮤니케이션 | 124쪽

김덕희 교수는 “단순히 혹해서 시장에 들어왔다가 가격 폭락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아예 비트코인 쪽으로 눈도 돌리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비트코인 비슷한 것이 나와도 마찬가지다. 투기는 자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인생은 한탕이 아니다. 한탕을 한 이후에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직업도 없고 목적도 없다면, 100세 시대에 그 많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영원히 한탕을 노리는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놀면서 그 재산을 탕진하는 수밖에 없다. 한탕을 노리는 것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생엔 주식이나 비트코인 말고도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것들이 많은가? 투기

는 순식간에 더 소중한 가치를 몽개버린다”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당첨 전보다 더욱 망가진 모습으로 망해버리기 일쑤”라고 했다.

또 “그러나 투기는 더더욱 위험하다. 로또는 갑작스러운 돈뿐이지만, 투기는 갑작스러운 돈과 함께 중독을 불러온다. 시행심을 불러온다. 더 빠른 속도로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며 “결국 인생이 탈탈 털릴 때까지 멈추기 어렵다. 투기를 하면서 적당히 돈을 벌고 적정선에서 그만둘 것이란 착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 투기에 있어서 마지막은 완전히 다 잃었을 때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창조주가 천지를 만들 때 에덴동산에 선악과와 생명 나무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즐기고 살라고 복을 주셨다”며 “그런데 그 많은 행복은 내팽개치고 선악과만 탐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김덕희 교수는 1990년대 주식으로 단번에 28억원이라는 ‘거금’을 벌었지만, 이후 1년에 10배짜리 작전주에 가담하고 무리한 투자로 그 중 20억원을 6개월만에 잃었다. 이후 ‘한탕’을 노리는 주식 중독에 빠져 빈털터리가 되고 빚더미에 앉아 가정에서 쫓겨나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 ‘직업상담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최근 책 <대학교수가 된 노숙자>에 담아냈다.

이대용 기자

새 관점 학자 제임스 D. G. 던이 말하는 부활

‘바울 신학의 새 관점’으로 잘 알려진 학자 제임스 D. G. 던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그 ‘독특성’과 ‘역사성’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사도행전(바울)과 사복음서 등에 나타난 성경 속 부활을 목격했다는 여러 증언들을 소개하고, 이 증언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차이점들에 대해 설명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 부활 목격자 명단에 마태·요한 복음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을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바울의 회심 사건 당시 부활하신 예수의 출현 사건은 환상이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사 람들은 예수께서 부활 후 얼마 동안 나타나셨다고 기억했는가?’ 등에 대한 대답이다.

이후 부활절 당일 제자들에게 의해 발견된 빈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당시 사건



부활 제임스 D. G. 던 | 김경민 역 비아 | 144쪽

에 대한 사복음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세부 사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이 일치한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했고, 머지 않아 그것을 자신들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으로 삼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그들은 또 다른 무덤을 마련해 시신을 다시 묻어야 했을 것인데, 어

떻게 그런 행위가 가능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빈 무덤을 발견한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예수 운동이 시작됐음을 고려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놓은 장소로 무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는 죽지 않았고,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힘을 회복한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겪으신 끔찍한 고문을 생각하면 숨을 거두셨다고 보는 게 가장 이치에 맞다”며 “설령 죽지 않은 채 무덤에 누워계신 동안 몸에 난 상처를 회복하셨더라도,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감고 있던 장례전을 스스로 벗겨내거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무덤 안에서 굴러내고 나오기란 불가능하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증언이 지닌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십자가 처형 직후 일요일,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됐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부활 신앙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삶의 회복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삶으로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대용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빛은 그 그 죄면하지 않았다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위턱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Fitting Technology GOLF
FTec
MATRIX SHAPTS FOURTEEN
위턱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월요일~금요일 9:30~7:00 토요일 사전예약 Only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송금 송금·환전 송금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지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등)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코카데로 세이 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고혈압, 난치병 연구
 • 니코틴의 생화학, 발암 연구
 • 미 연방재정연구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실로암 지역에는 다윗의 도시가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의 과거를 알려주는 고고학적 발굴들



실로암 망대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72)

실로암 연못과 히스기야 터널

다윗의 도시와 실로암

오늘날 다윗의 도시라는 유적지를 지나 키드론 골짜기와 힌놈의 골짜기 사이를 타고 옛 성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랍마을 실로암이 나온다. 키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동쪽은 멸망산이 자리잡고 서쪽은 다윗의 도시가 자리잡은 실로암 지역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어렵게 도시 근교 산동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다.

실로암(Siloam)은 실로암 지역의 수원지로서 동네의 유력한 물 근원이었으며 동시에 유다왕국 시절에는 성 안에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두 개의 샘 중에 기혼 샘(Gihon Spring)이 있다. 기혼 샘은 '물을 내뿜다, 처녀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이곳의 풍부한 지하수는 예루살렘의 충분한 수원지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 수여식 기쁨 부음을 이곳에서 했던 것이다.

다윗의 도시에서 키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기혼 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흘러가고 이 물은 다시 키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동쪽의 사

해까지 흘러간다. 1년 전부터 고고학 발굴을 통하여 실로암 연못이 있는 남쪽 지점에서 비잔틴 시대의 커다란 수영장과 주거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성전 산 지역 쪽으로 커다란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에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려준다.

세상의 빛과 생명의 물

실로암은 보냄 받은 백성들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뜻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 연못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이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죄인들이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린 언제나 모세의 율법이나 찾고 있을 영적 소경된 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 보자. 생각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맑은 물이 계속 내려오는 모습은 경이롭기

까지 하다.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으로 가보자.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Hezekiah Tunnel)이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어려운 열강의 압박 속에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이다.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칠 때 히스기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앗수르와 맞서 싸웠다. 그러나 후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을 때 그는 앗수르에 조공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 제안은 거부되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뢰하여 싸우게 된다. 이 와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토목공사를 BC 740년에 시행하게 되는데 바로 길이 540m, 넓이 80cm, 높이 80cm-3m에 이르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폴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는 엄청난 수로 공사를 기혼 샘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하게 된 것이다.(왕하18장 참조) 엄청난 공사는 설계도도 없이 맨몸 맨손으로 시작한 공사였다. 약 2,500명이 암반 터널 공사에 참여하였다. 기혼 샘과 실로암 양쪽에서 단단한 돌로 이루어진 수로를 파기 시작하였고 어느 날 양쪽의 인부들은 드디어 상대방의 망치소리를 듣게 되고 수로는 완성된다. 약 533m의 터널은 15cm의 오차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됐다. 한가운데에서 만난 그들은 햇빛을 높게 쳐들고 소리 높여 여호와와 영광을 기리며 기념비를 돌에 새겨 넣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념비는 현재 이곳이 아닌 터키 이스탄불에 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며

1838년 미국의 성경지리학자 로빈슨은 기혼 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탐사하였다. 2,500년의 세월 동안 퇴적된 바닷물의 진흙으로 인해 힘들게 탐사하였다. 30년 후에 영국의 위렌이 탐사하면서 기혼 샘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11m나 되는 수구를 발견하였다. 이곳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장군 요압이 성 안으로

잠입하는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삼하5:8) 그 후 1880년 실로암 마을의 아랍 어린이가 실로암 연못에서 기혼 샘 쪽으로 터널을 들어갔다 벽에 새겨진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비문은 1890년 그리스 사람이 떼어내서 팔았고, 지금은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비문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작은 조각들이 사라져 177자만 남게 되었다. 이 비문은 곧바로 고고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글에 의하면 공사 중간 지점의 약 1.2m를 남겨두고 양쪽에서 만났다고 한다. 모두 200자로 된 비문 가운데 177자가 보존되었는데 역사적인 지하 터널의 개통에 대한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3 Cubit(1.3m)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터널이 뚫리면서 서로 도끼를 부딪치며 열쌍안았고 물이 샘으로부터 1,200 Cubit(525m)가 흘러나왔다고 하였다.”

필자는 2018년 4월 19일 미국 마이애미와 러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연합팀과 다윗의 도시를 거쳐 와렌 수갱으로 실로암 연못을 가게 되었다. 옛날에는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곳을 개발하여 와렌 수갱으로 직접 히스기야 터널을 가서 실로암 연못으로 나가도록 코스를 만들었다. 오랜만에 킁킁하고 좁고 맨발이 닿는 바닥이 미끄러운 터널을 통과하니 처음에는 마치 무덤에 들어온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앞서서 일행들을 이끌고 나가다 보니 '종국에는 끝이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실로암 연못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부활의 아침을 알려주는 것 같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계속)



히스기야 터널의 모습



지금도 이곳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여름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길) 앞, (학문의 길) 앞, (십자가의 길)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비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6월 21일 개강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돌이킬 수있는 곳,
그러하여 충만한삶을 회복하는 곳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 213-272-6031

고베펠, 묻지마 폐업정리 단행 오는 9월 프리미엄 명품라인으로 승부수



가든그로브, LA 한인타운
부에나팍에서 마지막 정리
종전 세일의 반값으로 판매

진주 전문 고베펠사가 폐업정리 한다. 고베펠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불경기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전해 왔는데 이번에 부득이 폐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베펠사는 가지고 있던 각종 진주보석과 칼라스톤, 홍산호 바로크 진주 등 총 1만여 점을 '묻지마' 폐업 세일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묻지마 세일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고베펠사의 주 품목인 진주비드 목걸이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49불 99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세일 가격의 반값이다.

한편, 고베펠사는 이번 묻지마 세일 행사를 마지막으로 폐업하게 되는데 오는 9월부터는 헬렌 아이꼬 주얼리(Helen Aiko Jewelry)라는 이름을 내걸고 프리미엄 진주보석 등만을 취급하게 된다. 진주목걸이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아트 요소가 가미된 프리미엄 제품만을 엄선, 제작해 시판하게 되는데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등 GIA 명품라인을 구성해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중저가 제품이 아닌 그야말로 명품 프리미엄 라인의 승부수이다.

이에 따라 고베펠사가 15년 동안 시판한 중저가 제

품군들은 이제 미주에서 다시 제작을 하지 않게 돼 헬렌 아이꼬 주얼리에서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고베펠사는 그동안 진주보석 쇼라는 이벤트를 통해 5만개 이상의 진주비드 목걸이를 미주 한인 여성들에게 인기리에 판매해 왔다.

한편, 기존의 고베펠 진주비드 목걸이 서비스 등은 차질없이 헬렌 아이꼬 주얼리에서 맡게 돼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고베펠 관계자는 밝혔다. 고베펠사의 폐업 정리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장소는 달라도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동일하다.

가든그로브 행사 일정

2018년 5월 4일(금) - 8일(화), 단 5일간
장소: 인디안 아울렛(아리랑 마켓 몰 내)
9618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LA 행사 일정

2018년 5월 9일(수) - 11일(금), 단 3일간
장소: 로텍스 호텔 2층 연회장
341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19



부에나팍 행사 일정

2018년 5월 12일(토) - 13일(일), 단 2일간
홀리데이인 특설매장 Garden 1 룸
7000 Beach Bl, Buena Park, CA 90620



2018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제자를 심어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커서 또 선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3) - 예은교회 광건설 담임목사

새벽기도를 막 마친 이른 아침에 광건설 목사를 만났다. 동이 트기 전 훨씬 전인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온 삶의 이력이 짧은 만남에서도 드러났다. 가벼운 식사 후 광건설 목사의 삶과 사역 그리고 중국을 향한 열정을 들었다. 중국 선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얼굴이 빛났다. 중국 선교로 행복하다는 광 목사의 평소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다. 광건설 목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중국 선교 동력가다. 자신이 선교 현장을 누비기도 하지만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젊은이들을 중국 선교 현장으로 인도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결단과 믿음의 유산

광건설 목사는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랐다. 할아버지는 원래 독실한 불자였다. 절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선교사의 권면을 듣고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선교사의 인도를 따라 절을 개조하여 교회를 만들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된다. 전통적 신앙과 자신의 삶의 기반인 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결단의 사랑이었다.

광 목사는 이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인도와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 특별한 계기나 영적 체험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 야구 선수 생활을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크게 앓으며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심한다. 자연스럽게 신학교에 진학하여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도미와 유학으로 시작된 훈련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총신대학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큰 소용돌이를 경험한다. 소위 합동측의 주류와 비주류의 분열 시기였다. 교단과 신학교의 분리와 갈등은 옹고 그름을 떠나서 수많은 젊은 신학도들에게 갈등과 고민을 남겼다.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신대원으로 진학하면서

총신과 합신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의 현장이었다. 당시 의식 있는 많은 젊은 신학도들이 신학교를 떠나거나 유학길에 올랐다.

이 격동의 세월 속에 신학생 광건설도 고민이 많았다. 그 고민을 해결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사모다. 가족들은 이미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해서 함께 미국으로 가려는 상황이었다. 이런 자매를 만난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었다. 그래서 유학생같은 이민자, 이민자같은 유학생 생활을 하게 된다. 호락호락 하지 않았지만 은혜의 세월이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 찬양대 지휘자로, 부교역자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섬겼던 젊은 날의 모든 일들은 감사로 묶는다. 행복했다고 하기엔 너무 고단했고, 아팠다고 하기엔 받은 은혜 가득한 축복의 세월이었다. 사역의 훈련과 신학의 수련이 끝날 즈음에 광 목사는 예은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개척하며 세운 비전이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였다. 소위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로 세운 것이다.

중국 선교에 헌신한 목적

광건설 목사는 1년에 두 번 중국을 방문한다. 선교 기금을 준비하기 위해 바자회도 하고, 거라지 세일도 하면서 선교 여행을 준비한다. 1년에 두 번의 중국 선교 여행은 결코 쉽지 않다. 준비기간, 정리기간 그리고 3~4주의 중국 체류기간을 고려하면 중국 선교에 올인하는 목회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혹은 교회 선교기관의 사역으로 단기 선교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담임목회자와 전교회가 매년 2회씩이나 중국을 오가는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광건설 목사가 이끄는 ‘올림픽 월드미션’이 세운 중국 ‘올림픽 성서 대학’은 14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200여 명 졸업생 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역자가 12명이다. 졸업생 목회자들과 ‘올림픽 월드미션’의 선교 비전에 동의하는 목회자들 총 60여 명이 긴밀히 협력한다. 이들의 동역은 거의 교단에 가까운 연합체다. 개 교회 혹은 선교사 개인의 열정과 노력에 의존하는 선교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반면 지속적인 관리와 후원으로 선교 현장을 누비는 올림



광건설 목사

필 월드미션은 시간이 흐를수록 결실이 있다.

20여 년의 중국 선교가 그리 만만치 않았다. 너무 힘들어 피가 나기도 하고 스스로 타협점을 찾은 적도 있었다. 사람도 물질도 부족해서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다 했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중국을 향하게 되었다.

간증거리가 많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1년에 수만 불을 지출하는 선교비가 늘 부담이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서 포기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채워 주셨다. 2010년 어느 노숙자가 교회 건물에 방화를 해서 보험회사가 27만 불을 보상해 주었다. 간단한 불에 대한 예상 밖의 큰 보상이었다. 또 2012년에는 하수도의 역류로 교회 건물에 손상이 있었는데 시정의 실수로 인정되어 배상을 35만 불 받았다. 큰 도움이 되었다. 놀랍게도 두 번 다 7월의 선교를 준비하는 6월에 보상을 받았다.

선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광건설 목사의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다. 먼저 하나

님이 주시는 동역자들이다. 광건설 목사의 선교 열정에 맞장구를 치는 동역자가 중국에도 있다. 상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열정도 아름다운 중국 동역자다. 그는 중국의 복음화는 물론 북한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다. 뜨거운 마음으로 중국을 섬기는 광건설 목사에게 그의 동역은 큰 위로로 큰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위로는 선교 현장에서 젊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고 그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선교 현장에서 다듬어진 젊은이들이 차세대 사역자로 성장하고 있다. 차세대 세우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

선교 사역에 주시는 세 번째 위로는 교회 성도들의 동역이다. 목회자가 선교에 올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예은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광건설 목사의 선교 동역자들이다. 열정적으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선교에 올인한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증거다.

네 번째 위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선교 현장에는 지금도 기사와 이적이 풍성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체험들을 모아 엮은 책이 ‘하나님의 서커스단’이라는 책이다.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기사와 이적들을 담은 책이다. 중국 선교의 실제와 현장 경험을 나누는 중국 선교의 길잡이다. 이런 체험들을 주시니 만만치 않지만 선교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

아침을 가득채운 인터뷰 시간 내내 광 목사는 흥분해 있었다. 중국 선교를 말하는 광 목사는 힘이 넘쳤다. 부럽도록 행복한 모습이었다. 선교 현장의 기쁨이 기자에게도 전달되어 기자의 아침도 행복한 아침이었다. 행복한 사역자를 보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광건설 목사는 금년 7월의 선교 여행을 준비한다. 준비하는 7월의 선교 여행을 설명하는 광 목사의 눈은 또 빛나고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헤어진 기자의 입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이 암송되고 있었다. 기자가 광 목사의 선교적 간증과 열정을 들으며 마음으로 듣는 주님의 음성이라. 선교적 열정으로 달구어진 이 아침은 참으로 찬란한 아침이었다.

강태광 편집위원

성령강림절 및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찬양집회 및 콘서트

이은수목사와 함께하는

찬양예배 Concert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약속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야베스의 기도’의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가 전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약속 covenant

- 찬양콘서트 : 5월 19일(토) 저녁 7시
- 찬양집회 : 5월 20일(주일) 낮 12시
27일(주일) 낮 12시

- 장소 : 엘바인중앙장로교회(이기업 목사 사무) 17702 Cowan, Irvine, CA 92614
- 문의 : Tel. (714)329-2481



www.gvcsusa.org



100억의 지구촌을 섬길 인재양성
다음 세대를 위한 크리스천 인재의 요람

GVCS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글로벌선진학교

EUMSEONG

MUNGYEONG

PENNSYLVANIA



개교 15년 만에
한국과 미국에 3개의 캠퍼스(보딩스쿨) 설립
1,000명의 재학생
GVCS의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매 순간의 기적이었습니다.



GVCS 교육의 결과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매년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명문대학에 입학!
해마다 세계 우수대학들로부터 받는 엄청난 장학금!
(2017년 기준 졸업생 대학 장학금 총액 한화 75억원 이상)
동문들의 경쟁력 있는 취업과 진로!
전 세계 지역교회에서의 탁월한 지도력 발휘!

“GVCS가 해마다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한 크리스천 인재들을 배출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독교 중고등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주 교계와 한인교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사 초빙

GVCS 문경캠퍼스에서 한인 1.5세 및 2세 여러분을 교사로 초빙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육선교사역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문의 714-742-2674
sungwoo@gemgem.org
www.gemgem.org

미주동포
1.5세, 2세
교사환영

신입생 모집

GVCS 펜실베이니아캠퍼스에서 2018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상담 717-496-9487
kyungsoo@gemgem.org
www.gvcspa.org



GVCS 펜실베이니아캠퍼스 전경